

우리 시대의 한국 문학

13

신 화 단군신화 · 9 / 해모수왕 신화 · 10 / 해부루왕과 금와왕 신화 · 11 / 동명왕 신화 · 12 / 혁거세 신화 · 13 / 석탈해 신화 · 16 / 김알지 신화 · 19 / 수로왕 신화 · 20 /

전 설 조신의 꿈 · 39 / 노래왕과 잇금 · 41 / 연오랑과 세오녀 · 42 / 미추왕과 죽엽군 · 43 / 내물왕과 김제상 · 45 / 거문고 갑을 쏘아라 · 50 / 지철로 왕 · 52 / 도화녀와 비형랑 · 53 / 선덕 여왕과 예지 세 가지 · 56 / 김유신과 호국신 · 58 / 김춘추와 삼국 통일 · 60 / 문무왕 법민 · 71 / 만파식적 · 76 / 화랑 죽지랑 · 78 / 원성대왕과 호국룡 · 80 / 처용랑과 망해사 · 84 / 수로 부인 · 87 / 신라 불교의 기초를 닦은 아도 · 88 / 보장왕의 도교 신봉 · 93 / 두 성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· 97 / 어산의 부처 영상 · 102 / 중국에 유학 간 원광 · 105 / 보양 조사와 배나무 · 114 / 세속에 묻혀 산 혜숙, 혜공 법사 · 116 / 계율을 확정한 자장 율사 · 120 / 구애받지 않은 원효 대사 · 125 / 말하지 않던 사복 · 128 / 마룡을 굴복시킨 혜통 · 130 / 명랑 법사의 신인종 · 133 / 불사를 즐겨 한 선도 성모 · 135 / 월명사의 도술가 · 137 / 구름을 탄 낭지와 보현수 · 140 / 명예를 피한 연희 법사와 문수점 · 143 / 벼슬을 사퇴한 신충 · 145 / 포산의 두 성사 · 146 / 산 채로 아들을 묻은 손순 · 148 /

설 화 서동 설화 · 167 / 지귀 설화 · 168 /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· 170 / 설씨녀와 가실 · 173 / 오봉산의 불 · 175 / 점몽 · 176 / 구토지설 · 177 / 배신 · 178 / 황금 돼지 이야기 · 181 / 방이 설화 · 183 / 바보 온달 · 186 / 효녀 지은 · 189 / 도미 설화 · 191 / 박제상 설화 · 192 / 호동 왕자 · 195 / 수삼석남 · 197 / 죽통 미녀 · 198 / 미천왕 설화 · 198 / 김현 감호 · 200 / 용천사의 혜성가 ·

205 / 경덕왕과 충담사와 표훈대덕 · 206 / 해공왕 때의 흥조들 ·
 209 / 흥덕왕과 앵무새 · 210 / 신무 대왕과 염장과 궁파 ·
 210 / 경문 대왕과 당나귀 귀 · 212 / 진성 여왕과 거타지 ·
 214 / 김부 대왕 · 217 /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순도 · 221 / 백제
 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· 222 / 불교를 일으킨 원종과 순교한
 염촉 · 223 / 살생을 금한 법왕 · 228 / 가섭불이 좌선했던 반석 ·
 229 / 요동성의 아육왕탑 · 231 / 금관성의 파사 석탑 · 233 / 고구
 려의 영탑사 · 234 / 황룡사의 장륙 불상 · 235 / 황룡사의 9 층
 탑 · 237 / 세 곳에 나타난 관음과 중생사 · 240 / 백률사의 대비
 상 · 243 / 민장사의 관음보살 · 245 / 고려조 전후로 가져 온 사
 리 · 246 / 먼눈을 뜨게 한 분황사의 천수 관음 · 253 / 오대산의 5
 만 진신 · 254 / 천축으로 간 법사들 · 259 / 화엄종을 전한 의
 상 · 260 / 승전의 석축루 · 263 / 진표 조사의 뒤를 이은 심지 ·
 264 / 요사한 귀신을 물리친 밀본 · 267 / 염불로 서방에 오른 여
 자 종 옥면 · 269 / 광덕과 염장 · 271 / 문수 보살을 만난 경흥 대
 덕 · 273 / 공양을 받은 진신 · 275 / 선율의 환생 · 276 / 고요함을
 구한 혜현 · 278 / 도둑떼를 만난 영재 · 279 / 물계자의 충효 사
 상 · 280 / 진정 법사의 효성과 출가 · 282 / 두 세상을 부모께 효
 도한 대성 · 284 / 세 사람의 낙 · 286 / 두 달변가 · 287 / 관찰사
 가 되고 싶어 · 288 / 대머리가 된 까닭 · 288 / 극락도 싫다 ·
 289 / 바꾸어진 신랑 · 290 / 말 대신 닭 · 291 / 술과 방귀 ·
 292 / 등창과 변비 · 293 / 점술가의 변명 · 294 / 공처가 · 295 / 매
 사냥 · 296 /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· 296 / 종이 위의 헛된 이
 름 · 297 / 이몽이 아니다 · 298 / 이빨 주머니 · 299 / 음이 양을
 향거하지 못함 · 300 / 세 가지 축하할 일 · 301 / 즐기지 말아야
 할 장난 · 301 / 아버지의 수염과 쇠털 · 302 / 재물을 뺏은 기생
 모란 · 303 / 무 아버지와 독 과일 · 305 / 목을 묶인 주지승 ·

306 / 그것에 때가 있다 · 308 / 신승과 벗짚 · 309 / 도깨비 방망이의 변괴 · 311 / 주 장군전 · 314 / 인정 많은 임랑 · 318 / 모로쇠전 · 321 / 동자의 기지로 해를 면한 선비 · 322 / 빨랫방망이와 촛불 · 324 / 긴 이야기꾼 사위 · 325 / 잘못 알고 하는 곡 · 327 / 이빨 정표 · 328 / 거울 때문에 송사한 부부 · 329 / 장기 버릇 · 331 / 속아 지은 시 · 332 / 행운의 버들 그릇 · 334 / 기생과 나팔 · 338 / 공정한 분배 · 338 / 허무한 언약 · 340 / 치마끈 푸는 소리 · 341 / 주근깨 기름 · 341 / 바보 사위 · 342 /